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Korea

김 용 근(Yong-G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정체성 |
| II.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 2. 교육과정 |
| 1. 지식 | 3. 자격제도 |
| 2. 윤리성 | 4. 직업윤리 |
| 3. 자율적 통제 | 5. 조직구조 |
| III. 현장에서 보는 사서직의 전문성 | IV. 결론 |

초 록

도서관을 비롯한 지식정보관리기관의 경영에 정보기술의 도입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도서관의 발전이 더딘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사서라는 명칭을 싫어하고 정보센터나 정보관리기관과 정보전문직으로 부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서직의 전문성 논의에서는 주로 무엇을 다루어 왔는지를 알아 보고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와 대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현장 사서진은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 전문성, 정체성, 윤리성, 자격제도, 자질, 사서직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e organizations mana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include libraries has caused some confusion to the identity of libraries and librarianship. The libraries and librarians in the societies whose library development lags behind like ours prefer being called information centers or information specialists to libraries and librarians. This paper traces what has been discussed for the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 and how librarians, who want to be treated properly in status as professionals, understand the professionalism.

Keywords : professionalism, librarianship.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ygkim@cuth.cataegu.ac.kr)

• 접수일 : 2002. 11. 26 • 최초심사일 : 2002. 12. 5 • 최종심사일 : 2002. 12. 6

I. 서 론

지금까지 도서관의 문제를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가 아닌 외부에서의 논의는 주로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그것도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고작이었다.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에 도서관이 펼치는 행사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것들이 도서관으로 시민들이 다가서게 하는 방안이 된다고도 지적한다. 도서관도 일회성이며 이벤트적인 행사에 열성을 보이고 언론도 좋은 기사로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 우선 두 가지 시민단체의 결성이다. 먼저 2000년에 출범한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출범이다. '문화개혁 시민연대'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결성하여 지적 산물이 생산되는 사회기반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출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는 학교도서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단체로 수 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도서관과 관련된 두 중앙부처에서 도서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관종별 도서관을 연계한 정보서비스 중심의 도서관 업무,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활성화, 국가전자도서관에 참여 도서관의 확대, '밀레니엄 도서관 시범지구'의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확정하고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는 도서관 시설을, 이미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규모확장을, 학생 1인당 장서수를 늘이는 등 도서관이 실질적인 지식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 시설과 장서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발전방안의 수립이 확정되었음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없지 않음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요란한 발전계획의 발표는 있었으나 그것이 실행된 사례는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정책입안 부처와 예산지원 부처간의 도서관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방안이 아주 약하게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제시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 확보방안'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겸임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들에게 맡긴다는 계획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모르고 계획을 성문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

한 공청회'에서도 전담 사서교사의 배치, 임시로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일용직 사서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지역 교육청마다 3명~6명 정도의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도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시도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더 필요한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인력과 보조인력(학부모 자원 봉사자, 겸임사서교사, 계약제 사서)의 활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정 토론자 모두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서관 관리인력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세부적인 대책수립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¹⁾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공청회 이후 한 동안 계속되었다.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에서는 길고도 자세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발전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네티즌 모임인 '하이텔 열린도서관 동호회'에서도 논평을 내고 사서교사의 임용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 후 도매리를 통하여 사서들간에 사서교사의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이 한 여름을 달구었다.

그 중에는 현재 학교도서관 관리자들의 수준을 보고는 사서직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심해진 경우도 있었다.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를 '사서의 전문성 논쟁,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사서의 직업윤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글도 있다.²⁾ 사실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다. 문헌정보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사서직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서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사서직도 그대로 가지며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서직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학부과정에 설치되고 있어 주제전문 지식이 부족한 점과 대학원과정이 아니므로 사회적인 인정에서 그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정보기술의 이용이 많아지고 사서라는 명칭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정보시대에 일할 사람에게서는 정보전문가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많다.³⁾

- 1) 이은철, "정부의 도서관 발전계획에 바란다, 《도서관문화》 43(4) (2002.7/8), pp.2-3.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도서관문화》 43(4) (2002.7/8), pp.89-9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서관문화》 43(4) (2002.7/8), pp.25-27.
- 2) 김기문, 사서직의 전문성 논쟁,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도서관 운동》 5(2), pp.5-7.
- 3) 김성혁, "정보화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1993), pp.69-85.,
홍현진, 21세기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000.9), pp.277-298.,
김용,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정보전문직의 역할 및 요구조건, 《한국비블리아》 13(1) (2002.6), pp.167-179.,
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1996.6), pp.3-50.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교육목적을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는 한 연구에서도 사서보다 정보전문가라는 명칭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목적으로는 ① 유능하고 자질있는 정보전문가(전문사서 등 포함)의 양성 ② 문헌정보학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교수) ③ 문헌정보학 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배양)④ 사서교사의 양성 ⑤ 문헌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의 순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주요 일터인 도서관현장이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단에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무엇이라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확보 또는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성을 알아 보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증진대책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도서관메일링리스트(이하 도메리라 함)에 올려진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도메리에 올려진 글들은 현장 사서직이 그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적 지식들이 꾸밈없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질문지 또는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사실 그대로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통계적인 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II.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어느 나라에서나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이래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 이다. '한국문헌정보학색인'⁵⁾에서는 사서의 자질: 전문성, 사서의 가치관·철학, 사서의 사회적 책임, 사서의 자격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의 서지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실 '사서직의 전문성'이란 문헌정보학 교육목적이며 교과과정의 구성이 되고,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의미하므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논의는 모두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찰하고 있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전문직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사서직이 그러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이 이해되고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서직이 전문직인가 또는 전문직이

4) 김성수,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도서관학논집》 28(1998 여름호), pp.355-382.

5) 박준식·이애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한국도서관협회, 1994.

아닌가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우리 나라의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는데 보탬이 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지식, 윤리성, 자율적 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⁶⁾

1. 지 식

사서직은 그 직무가 지식의 생산, 보존, 전달, 발전, 교육활동 등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지식과의 관련성이 있고,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지식과 이론의 체계가 있으며 그것이 조사연구 활동에 의해 계속 보강되는 것이나 하는 기준도 충족시키고 있다. 사서직은 교육을 통하여 문헌정보 현상에 관한 일반 개념의 체계를 가지며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정의, 검토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도서관 운용의 방향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서직이 지식을 얻게 되는 주된 경로인 교육과정을 살펴 본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 IFLA는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로 다음의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⁷⁾

- ① 정보환경과 정보정책
- ② 정보일반화, 커뮤니케이션과 이용
- ③ 정보요구 평가와 정보서비스 고안
- ④ 정보전달 과정
- ⑤ 정보조직화와 검색
- ⑥ 정보의 연구, 분석, 이해
- ⑦ 도서관과 정보생산과 서비스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응용
- ⑧ 정보자원 경영과 지식관리
- ⑨ 정보기관의 경영
- ⑩ 정보와 도서관 이용결과의 질적 양적 평가

이 연구는 사서직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의 사서직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FLA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6) 최성진, 사서직의 전문성 고찰, 《도협월보》 15(10), (1974.10). pp.2-8.

7) 이미화, 사서직 교육기관 조사 : 4년제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과 도서관》 2(4) (2001.12), p.49.

1) 교과과정 연구

한 나라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는 크게는 국가적 환경을, 작게는 교육기관 자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수준은 그 나라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구조와 국가과학기술정책, 도서관인력의 수요와 공급, 국립도서관의 활용 및 하부구조,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전공에 관한 자국어로 된 교과서와 문헌의 질적·양적 정도 등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한다.⁸⁾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 현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대답의 과정으로 존재해야 하며, 도서관 현장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보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학문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문헌정보학의 논의는 그것이 교육과정이거나 연구주제에서나 지나치게 실무지향의 측면에 비중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철학적인 면, 정보정책, 정보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나 정보문화에 관한 제반 문제 등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연구결과도 많다. 연구자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 연구주제를 교육에 관한 주제로 수행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학회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연구결과도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⁹⁾

- 1977. 5. 8. : 학술세미나 “도서관 전문직 교육의 현재와 장래의 문제”
- 1977. 5. 28. : 도서관교육 세미나 “도서관학 교육과정”, “도서관학 교육제도 문제”, “도서관학 교육기관 및 전문직 수요전망“
- 1979. 7. 19-20. : 도서관학 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 “하바드 윌리엄스 교수 강연”, “참고업무 과목의 내용”, “정보학 과목의 내용”, “서지학 과목의 내용”. “도서관학개론 과목의 내용”
- 1982. 7. 24-25. : 학술세미나 “서지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정보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 1982. 10. 30. : 연구보고, 정필모 교수가 문교부에 연구보고한 도서관학 모형 교과과정 시안에 대하여 발표
- 1982. 12. 16. : 도서관학 교과과정 표준화 소위원회를 구성
- 1996. 6. 21. :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¹⁰⁾ 한상완,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12, p.64.

9) 한복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학》 11집 (1984), p.52.

10)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1996. 6. 21..대전 유성호텔)

최석두, “학부제에 따른 문헌정보학의 제반문제-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을 중심으로”

이은철,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성균관대학교 문정보학과를 중심으로”

2000. 7. 6-7 : 제8회 4개학회 공동 학술대회(경주 조선포텔), “문헌정보학의 과제와 전망”

정필모,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 1983.

최성진·윤병태·구본영, “한국적 도서관학 교과과정 연구”, 1985.

권기원·이두영·김윤식, “사서직의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8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989.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을 조사분석하고 개선점을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한 문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¹¹⁾ 두 종의 문헌정보학 학회지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된 문헌 39건을 검색하고, 이것을 교육일반, 전문분야 교육, 정보교육, 사서교육, 국가별 비교, 전문대학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교육일반의 내용은 문헌정보학의 회고, 문헌정보학의 발전 방향에 관한 것들이 많다. 전문분야 교육에는 주제전문 사서, 경영, 정보검색 등이 포함되고,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교과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국가별 교과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들이라는 지적이다. 교과과정의 연구에서도 과목명, 학점수, 필수선택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에 대한 상대적 평가 및 비교에 관한 연구는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수용하여 교과목에 웹데 이터베이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록관리학 분야도 교과목에 들어 있지만 도서관의 사상, 철학,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도서관 봉사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은 없다. 도서관의 사상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하는 과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주 강하게 분석결과와 제안 사항을 표출시키고 있다.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교육목적과 목표, 세부사항에 도서관의 이념항목이 추가되어야 하고 둘째, 교과과정은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부제의 실시로 4년제 대학은 사서직 배출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현장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과의 교수진이나 현장에 있어서 같은 학교 출신 중심의 학연관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이미화, 사서직 교육기관 조사: 4년제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과 도서관》 2(4) (2001.12), pp.1-57.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39건의 논문은 그 제목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장 사서의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강단 연구자들의 그것과는 비판의 정도가 다르다.

2) 계속교육

사서직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제시되는 이론과 기술을 익혀 실무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에서부터 전달기술과 정보추구행태의 다양화, 세분화까지 변화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 우리 나라에서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규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중점연구 과제로 되어 왔으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성이나 실행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과 훈련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교육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연구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본다.

현장 사서진이 국립대학도서관 사서 99명으로부터 설문 조사하여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계속교육 체제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문헌을 검토해 본다. 첫째, 교육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협회, 학회, 문헌정보학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등에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직의 계속교육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둘째, 교과목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셋째, 관종별로 사서직원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피교육자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교육대상자의 선정시 직급별, 계층별 선정이 아니라 업무별, 주제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²⁾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 221명으로부터 설문 조사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살펴 본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강사, 퇴직자, 무직자 등 현재 현장사서가 아닌 사람은 제외 시키고 있다. 첫째, 계속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둘째, 소속기관의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시간과 재정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계속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탐색, 서지정보의 DBMS적용, 정보네트워크 기술, 도서관 서비스의 측정과 평가, 정보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¹³⁾

또 다른 하나의 연구는 현직 사서 743명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속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계속교육에 대한 주관 부처별 평가제도의 확립, 특성화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 연구에 대한 성과급 제도

12) 김현식 등, “도서관 사서직의 재교육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12집(1994), pp.131-149.

13) 장혜란,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997.3), pp.7-23.

의 도입, 해외연수의 추진, 새로운 계속교육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정규계속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⁴⁾

현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계속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되는 교육훈련 뿐이다. 2002년도의 계획에서는 1300명에 대하여 29회에 걸쳐 169일 교육하는 것이다.¹⁵⁾ 국가의 사서직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빈약성을 볼 수 있다. 위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선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3) 개별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별 도서관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거나 해외 연수를 장기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가끔 개인적으로 외국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과는 다르다. 도서관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 본다.

지난 2년 동안 부산대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서직운동은 이 도서관의 다양한 부서의 업무개선이 그 뼈대를 이루면서 이것이 현장사서직의 자질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사서직을 위한 자체기술세미나 시리즈가 지난 2년간 사서직의 자질개발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세미나는 '92년에 12회, '93년에 12회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 도서관의 업무과정이 사서직 스스로의 말과 글로써 표현되고 분석된 바 있다. 이 세미나 시리즈를 통하여 이 도서관의 사서직은 자신의 일에 관한 자신의 언어를 일정 정도 만들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¹⁶⁾

부산지역 대학도서관간 정보교류회에서는 자체 세미나 시리즈의 하나로 북경지역 도서관을 견학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청화대, 북경대, 중국국가도서관 등을 둘러보고 왔다. 개별 도서관의 연수 활동은 아니나 업무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자.

이번 여행은 부산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회 제5차 세미나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북경지역의 도서관 견학이 주목적 이었다. 정보교류회는 1995년 부산지역 대학도서관 사서 6명이 주축이 되어 모임이 결성한 후 현

14) 임동빈,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2001.12), pp.51-78.

15) 국립중앙도서관, 2002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계획, 《도서관계》 2002. 1/2, p.79.

16) 김정근, 사서직운동-현장사서-자질개발,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6호 (1993.11), p.2.

재 3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상호교류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4월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를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회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¹⁷⁾

현직 대학도서관장은 사서연수회의 기조강연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단기 연수 교육,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외국 도서관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단기연수를 하고는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 수가 많다.¹⁹⁾ 전문지식의 습득이라기 보다 전문을 넓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계속 교육의 실천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2. 윤리성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윤리성이다.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인식은 중요한 것이다. 사서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 책임 및 자율성에 대한 자기규제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통적 사서의 업무가 비영리기관인 도서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정보의 생산, 유통, 제공 등 봉사가 상업적 이윤추구의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윤리적 문제는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²⁰⁾

한편 전문직 단체가 제정하는 윤리강령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빈번하다. 윤리강령의 항목 하나 하나가 실무의 지침으로 실제 적용이 되고 업무수행 여부를 제어 보는 잣대가 되며 또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경고나 처벌을 하는 엄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전문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자기향상의 점검도구로서 일상업무와 연결시켜 전문직 의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그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²¹⁾

17) 김명희, 북경지역 도서관 견학을 다녀와서- 부산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회 2001년도 (제5차)세미나 결과보고, 《도서관문화》 42(2) (2001/3.4), pp.21-24.

18) 신숙원, 대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문제점과 그 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17차 실무자 워크숍, (2002. 7. 11.-12.,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pp.10-23.

19) 김지봉·문영순,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보고, 《도서관문화》 42(6) (2001.12), pp.32-41.

송영숙, 일본 도서관 어린이 봉사의 현주소, 《도서관문화》 40(1) (1999.1·2), pp.12-22.

송영숙, 일본 도서관 어린이 봉사의 현주소 (하), 《도서관문화》 40(2) (1999.3·4), pp.4-13.

20) 박인용,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25집 (1996. 겨울호), pp.207-223.

21) 이순자, 정보관리와 전문직 윤리, 《도서관학》 22집 (1992.6), pp.1-27.

우리 나라에서의 사서직 윤리강령에 대한 논의는 전국사서협회에서 몇 차례 소식지를 통하여 그 제정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²²⁾ 1997년 제정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3개의 이념과 4개의 촉매 요소가 윤리선언의 대항목을 구성하고 7대 주문을 이루고 있다. 이 주문에는 각각 4개항씩 총 28개항의 실천강목이 제시되고 있다. 각 실천강목은 도서관인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가치체계를 정돈하여 제시하고 있다.²³⁾ 사서직 윤리에 관하여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사서를 통하여 성문화 된 장서개발 정책의 유무,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성문화 정책의 유무, 정보제공시 사서의 중립성 유지에 대한 동의 등을 알아 보고 있다. 또한 윤리강령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서직 교육에서 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윤리강령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선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현장 경험이 많은 한 원로 사서의 지적에서 찾아 본다.

사서들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발전저해 요인도 지식과 기능의 면보다는 자질과 인성 또는 사상과 철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초적 인격의 면이 문제로써 훨씬 더 심각하다. ... 전문직의 기량을 지녔으며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서, 뚜렷한 정체의식과 바른 역할지각을 가지고 높은 성취동기와 왕성한 사명감으로 제 몸을 바쳐 일 할 사서, 또는 현장에 나와서 경험과 훈련을 거치면서 그러한 사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²⁵⁾

3. 자율적 통제

사서직의 자율적 통제는 주로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사서직 전문단체의 활동을 간략하게 고찰해 본다. 전문직 단체의 존재는 전문직으로 향하는 지침이며 협회를 생각하지 않고는 사서의 전문성을 생각할 수 없다. 도서관협회는 사서의 권익을 옹호하고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사서들이 소속한 기관과 회원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일을 창안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실행기준을 만들고, 윤리강령을 마

22) 이용훈, 사서윤리강령에 대한 제안, 《전국사서협회소식》 3(5) (1993.10), pp.10-16.

이 글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강령(1980)'의 소개, 제정까지의 과정과 미국도서관협회의 '직업윤리에 관한 성명 1981'을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23) 현규섭, 도서관인 윤리선언 제정의 의의, 《도서관문화》 38(6) (1997. 11,12), pp.40-44.

24) 김혜선,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5., pp.67-72.

25) 조원호, 도서관과 도서관인 윤리, 《동대문도서관보》 7호 (1978-79), pp.24-30.

런하여 이의 준수를 감독, 통제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주요 목적에는 국내 도서관 상호협력, 도서관문화 국제교류, 도서관운영 및 관련학문 발전, 사서직 자질 및 권익 신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⁶⁾

지금은 그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전국사서협회의 결성 당시의 의욕은 대단하였다. 그 열기의 일단을 보자. ‘...우리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희망하며, 사서직 내부에서도 제자리 찾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도서관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도서관을 책임지는 사서로서 이러한 권리에 복무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²⁷⁾

위의 두 단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도서관사서들의 스터디 그룹이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는 현장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결성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운동을 통해 도서관현장의 민주화와 시민의 사상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실천적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장의 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과 도서관정책의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기대가 되는 단체이다.²⁸⁾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도 결성되어 매년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실시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III. 현장에서 보는 사서직의 전문성

도메리에 올려지는 메시지는 개별 사서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형식 또는 정보교환이나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경우로 대별 할 수 있다.²⁹⁾ 그것이 어느 경우이거나 메시지의 내용은 사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나타내므로 어떤 연구를 할 목적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지에 응답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여 질의에 대한 응답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현장 도서관 사서진의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도메리의 메시지는 도서관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그 내용에 관련된 의견 제시가 많다. 그러한 예가 지난 여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여 발표한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

26) 한국도서관협회 <www.korla.or.kr>

27) 전국사서협회, “전국사서협회 창립선언문”

28) 도서관운동연구회 홈페이지 <www.libmove.or.kr>

29) 유정인,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0., p.30.

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계약직 사서들이 이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서교사 확보방안의 부적절성을 성토했던 메시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³⁰⁾

이 장에서는 도메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현장사서직의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련된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크게 정체성, 교육과정, 자격제도, 직업윤리, 조직구조 등으로 나누어 고찰 한다. 각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사서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도메리에서 정체성, 전문성, 자질, 조직구조, 직업윤리, 사회적 인정, 도서관 철학, 교육과정 등 사서직의 전문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어를 탐색어로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유형별 구분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논의하면서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한 것이다.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일본의 한 연구자의 견해를 살펴 본다. 공공도서관의 초임 사서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서의 전문성은 도서관 업무를 통하여 실행되어야만 이용자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³¹⁾ 이 내용을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한 사서가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 이유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의 형편과 비교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사서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정업무 담당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내의 비사서직들이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직의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유용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서관의 존재는 서점 영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이나 단체들의 자료이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서는 현장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가 현장 도서관의 자료수집을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²⁾

또 하나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이 되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사서직의 이미지 유형을 현실 인식형, 자긍심형, 정보기술 수용의 진보형, 현실 비판형 등으로 식별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사서들은 모두 사서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적합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서직의 사회적 역할과 정보문제 해결의 조력자라는 측면을 사서직 이미지로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변화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보기술의 활용, 사서직의 계속교육, 인성 및 직업윤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

30)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성명서, 도메리 글 번호 12735.

31) 류현숙 역, "공립도서관 사서의 자기개혁을 위한 열가지 과제, 《도서관문화》 42(1) (2001.1.2), pp.30-52. 저자인 미나이 히데기 교수의 "도서관 운동은 무엇을 남겼는가 : 도서관원의 전문성"이라는 저서가 소개되고 있다.(도서관계, 2002.4, p.41. 참조)

32)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이유 생각하기1, 도메리 글 번호 9589.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이유 생각하기2, 도메리 글 번호 9597.

였다.³³⁾

1. 정체성

사서직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첫째, 사서직의 일터인 도서관에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조직의 성과평가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식과 정보의 봉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경우 둘째, 교육제도가 사서 전문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있지 못한 경우 셋째, 사서들이 지식과 정보의 보존, 전송, 교육, 분석, 해석, 탐색가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만 하고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라는 지적이 있다.³⁴⁾

정보기술의 발전은 도서관의 의미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으로 대체할 정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사서들의 직무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사서의 도움 없이도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사서직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도메리에 올려진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 본다.

교육과정에서 도서관의 이념과 철학, 핵심적 도서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중심의 편향된 교과과정은 지양하고 사서와 도서관에 관한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적 토대를 만들고 사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분야를 이해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³⁵⁾ 도메리의 메시지를 살펴 본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만한 문헌정보학의 철학은 어디에 있나요.
문헌정보학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정신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
문헌, 정보, 기술 지식적인 것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어디에 있나요. 왜 우리가 사서, 도서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사서, 도서관, 문헌, 정보, 기술 이런것만 알면 정신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³⁶⁾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대 담론의 제시보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실천만이 도서

33) 이은철·김갑선,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002.9), pp.25-48.

34) 박인용, 앞의 논문, p.211.

35)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57(1) (2002.3.), pp.17-39.

36) 문헌정보학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도메리 글 번호 5456.

관의 존재와 사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이슈에 눈감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추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적인 방법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창한 것만 문헌정보학의 담론으로 삼아온 경향이 있었다.

정보화 사회의 도서관이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서관의 역할이니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문헌정보학의 화두로 꺼낼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던게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두고서 우리 학계나 모임에서는 외면으로 일관할 뿐,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따위 문제는 위대한 거대담론에 비하면 시시한 잡담에 불과하다 는 소리인가. 아니면 이제 질렸거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주제로 전락했다는 것인가.

도서관 이용자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의 참 모습이 아닐까.³⁷⁾

공공도서관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해 온 책임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도서관의 이해를 보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성을 실감하게 된다. 도서관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사서들의 사기를 꺾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서관 정책 입안과정에서 번번히 도서관 전문가들의 참여가 무산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도서관 개편안은 21세기 정보화 국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면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개편해서 다양한 교육그운영램 ,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일본도 평생학습 정보센터로 개편해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편협한 도서관 기능을 확대해서 지역사회 교육문화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배경입니다. ...

'도서관'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책 빌려주고 책을 보는 기관으로 인식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 상담기능, 교육적,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름을 그에 걸맞게 바꾸어야 합니다.³⁸⁾

10년이상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사서의 현실 지적은 아픔을 넘어 슬픈 노

37) 도서관 이용자는 한 숨 쉬고 있는데., 도메리 글 번호 7609.

38) KBS1 라디오 '문화살롱' 대담 내용, 도메리 글 번호 2524.

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저 자신 사서이지만 사서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무원 직종 중에서 9급(사서서기보)로 첫 임용되는 전문직은 없습니다.

둘째, 자격수당 문제입니다.

셋째, 전체조직 내에서도 사서직은 한직도 아주 한직입니다.

넷째, 요즘 도메리에 자주 뜨는 임시직 사서구인 광고 있지요.

다섯째, 사서자격 취득 문제입니다.³⁹⁾

한 사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도메리를 통하여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

1. 사서직이 전문직이라는 근거는.
2. 우리 나라에서 사서직의 인식도는
3. 우리 나라 사서자격 취득이 전문직에 합당한가.
4. 우리 나라 사서직이 전문직이 되려면
 - (1) 교과과정 (2) 문헌정보학 교육자 (3) 사서 및 사서단체
 - (4) 도서관 및 관련단체 (5) 정부 및 정책

그는 우리 나라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결방안이 될 사서직의 필수요건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보자.

1. 낙후된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인: 도서관은 공부방, 사서는 책지기
2. 자격의 전문성 부족: 누구나 큰 노력과 전문 지식 없이 취득 가능
3. 전문적 계속교육의 부족
4. 직업윤리 의식, 전문가 정신의 부족
5. 전문단체의 활동 부진⁴⁰⁾

사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요소

1. 사서직의 직업윤리를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

39) 아~~! 사서가 과연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아픈 생각, 도메리 글 번호 10808.

40) 사서직과 전문직, 도메리 글 번호, 4818.

2.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야 한다.
3. 문헌정보학 교과목을 잘 공부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보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보조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속적인 계속교육 및 활동을 하여야 한다.⁴¹⁾

그는 계속해서 도서관현장의 사서와 강단의 교육자가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며 충고하고 있다. 그 부분도 같이 살펴 본다.

<사서>

1.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2. 실력을 쌓아야 한다.
4.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전문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문직다운 자세를 갖도록 노력 특히 직업윤리와 태도에 유의
5. 이용자 중심의 사고 전환
6. 계속교육의 노력에 게으르지 말 것

<학계>

1. 사서직의 직업윤리부터 먼저 몸에 배이도록 함.
2. 사서직의 역할과 영역에 대한 비전 제시
3. 학문을 강도 깊게 제대로 가르쳐서 실력있는 사서를 배출
4. 학과간의 전략적 협력 실시- 컴퓨터공학, 경영정보, 기타 주제
5.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학문에 적용⁴²⁾

위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현장사서는 사서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갈래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학과 문헌정보학의 관계를 정보학은 문헌정보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서가 바로 정보전문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한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 검색사, 문서전문가 등이 단지 사서라고 불리우지 않는다는 것 뿐인데, 우리가 이 쪽으로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하고 있다.⁴³⁾

41) 사서직의 필수요건, 도매리 글 번호, 4817.

42) 문헌정보학 VS 정보학, 도매리 글 번호, 7153.

43) 이성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회진출동향에 관한 연구, 《도서관》 58(2) (2002.여름), pp.39-62.,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하는 정보전문직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도서관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서 또는 사서직 ②정보과학자 및 정보전문가③문헌정보학 교수 등 교육자와 연구자 ④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지역, 국가, 국제기구 등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전문직.

2. 교육과정

사서직의 전문성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지만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그 응용에 관련된 사항 만큼 중요성이 강조될 수는 없다. 여타의 요소들은 사실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같이 얻어지는 수가 많다.

현장사서들이 제기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학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에서 도서관과 사서직의 철학적 이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시켜 지식정보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도메리의 메시지에에는 대학과정에서의 교육보다는 계속교육에 대한 주문이 많다. 우선 계속교육의 수혜자가 많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이 정교하지 않다는 등 실제로 교육결과가 현장업무에 도움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떠한 검증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라면 검증받지 않아도 인정되는 전문인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기본 자질과 양질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본연의 사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직의 사서들은 전문직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프로그램이고 사서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사서들은 다른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⁴⁴⁾

계속교육의 방법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도 있다.

합격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자격증 발급 후 매 5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자격증 효력을 지속시킨다.⁴⁵⁾

외국의 계속교육 제도를 소개하면서 사서자격증 보다는 실제로 개별 사서들이 문헌정보학 지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기관의 경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교육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일반적으로 사서에 대한 재교육이 활발한 것 같다. 학사졸업장을 가지지 않은 사서라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바로 석사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경우를 보았다. 특히 파리8대학은 오히려 이러한 학

44) 사서 VS 학예사, 도메리 글 번호, 5768.

45) 사서자격제도 개선제안배경설명, 도메리 글 번호, 3778.

생을 선호하는 것 같다. 결코 학벌만 따지지 않는 것 같다.⁴⁶⁾

계속교육 문제는 현장에 있는 모든 전문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하고, 순회 또는 원격교육, 전문부문 교육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 전문단체나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계속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사서직원들의 연수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나 개인들은 너무나 중요한 대목을 경시하고 있다. 단위도서관 내부에서나 지역 단위의 상시적 '연구회'를 통하여 심화시킬 수 있다. 초청연사가 있는 행사형 연수회는 큰 실익이 없는 것이다.⁴⁸⁾

3. 자격제도

대학의 학부제 실시와 도서관 현장의 업무내용의 변화 등으로 사서자격제도의 개편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제도의 개편에는 사서자격시험제도의 도입과 준사서, 2급정사서, 1급정사서로의 구분과 승급방식에서 불합리성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계의 의견을 집약한 적이 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사서자격시험제도의 시행을 주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서명운동을 펴기도 했다.⁴⁹⁾

새로운 사서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과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인력양성과정을 재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의 하나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⁵⁰⁾ 도메리에 올려진 현장사서들의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주장은 단연 자격시험제도의 실시이다.

전문직의 대표로 의사, 회계사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직업군들은 모두 시험을 통해 자신의 자격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많은 졸업자들은 졸업만 하면 얻게 되는 자격증에 회

46) 사서의 전문성을 읽고, 도메리 글 번호, 5903.

47)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55(4) (2000.겨울), pp.3-33.

48) 김정근,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 (전남대 문헌정보연구회) 4집 (1989), p.26.

49) 사서자격제도 개선, 도서관운동연구회, 도메리 글번호, 7995.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전문지식과 소양, 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

50)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p.22

의를 느끼게 됩니다.⁵¹⁾

사서의 전문성은 현재 제도하에서 학위의 구분이나 자격증의 구분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없다. 둘째,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차이에서 오는 전문성을 논할 수 없다.⁵²⁾⁵³⁾

병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이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간호사는 의사들과 함께 업무를 보면서도 그들의 전문성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관찰이다.⁵⁴⁾

사서교육원은 이제 새로운 사서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보다는 계속교육기관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⁵⁵⁾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이 꼭 시험제도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정의 심화와 사서 자신의 지속적인 자기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낮은 요인은 오히려 사회적 의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도서관 운영에서 관료화와 비전문성, 이를 개선하는데 사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⁵⁶⁾

4. 직업윤리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요소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전문적기술과 전문직업적 윤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기술은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적 윤리성은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은 윤리강령을 통해 자율적 규제를 실시하고 봉사대상자들로 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일어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또는 정보기술의 오용 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도메리에 올려진 사서직의 윤리성에 대한 의견은

51) 사서자격증은 왜 졸업만 하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서조사직 취업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글 번호, 219.

52) 사서의 전문성?, 도메리 글 번호, 5900.

53) 사서의 위상에 대한 단상, 도메리 글 번호, 10809.

54) 사서자격 문제 있다, 도메리 글 번호, 1720.

사서자격 문제 있다2, 도메리 글 번호, 2080.

55) 사서교육원, 도메리 글번호, 2059.

56)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p.32.

많지 않다.

사서직은 직업윤리를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 정보를 선별하여 필요한 이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교과서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직업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다.⁵⁷⁾

사서직의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윤리적 기초와 일곱 항목의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있다.⁵⁸⁾ 윤리문제가 도메리에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요인을 알 수 있다. 어떤 강령의 선언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5. 조직구조

사서직이 직무수행을 하는 도서관의 조직이 동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보다는 관리와 통제 중심의 수직적 조직이 많다.

사서는 그가 소속된 조직체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서는 전문적인 성격을 띄는 업무와 피고용자로서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전문직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 대고객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과 윤리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 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독립성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전문직의 성공 정도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조직의 논리보다 지식 정보전문가로서의 관점과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도메리에 올려진 조직구조에 대한 메시지는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내에서의 모순점을 고발하고 있다.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서로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에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개인 감정과 불합리성에 근거하는 독선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지향하는 행태들... 그러면서도 업무중심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반한 운동 '도서관'과 '전문직'을 송두째 말아먹어버림을 정작 스스로 모르고...⁵⁹⁾

57) 사서직의 필수요건, 도메리 글 번호, 4817.

58) 이근철, 사서직의 윤리문제, 《도서관》 34(2) (1979.3), pp.4-10.

59) 사서직 전문직???, 도메리 글 번호, 10815.

도서관에서 노동이 사서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문헌정보학이 잘못되어서 또는 사서가 제대로 못해서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조직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사서가 노력해서 이러한 모순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직이 유연한가,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이 되는가. 더욱이 조직이 클수록 모기관의 영향이 절대적이다.⁶⁰⁾

IV. 결 론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는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해 온 주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나 세미나는 많지 않다. 물론 우리 분야의 학계나 현장에서의 그 어떤 활동도 모두 넓은 의미의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논의되는 주제가 너무 세분되거나 아니면 아주 광범위하여 때로는 그것이 문헌정보학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연구논문색인을 조사하여 보면 1980년대까지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련된 논의가 많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은 문헌정보학 강단과 현장에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각각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 '전국도서관대회'의 주제인 '사서자격제도', '도서관과 사서명칭', '전문직단체' 등의 '이대로 좋은가'에서 당시의 우리 분야의 고민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초청 연사가 있는 강연형식의 발표에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마치는 행사이므로 당장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에는 보탬이 되는 것이다.

강단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얻기 위한 제도적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있다. 주로 교과과정을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들이다. 문헌정보학의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 학점, 필수 또는 선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는 것이다. 90년대 후반에는 대학과정이 학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과목, 학점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다. 오히려 늘 사서직에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특정 주제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한 복수전공의 제도화를 위해 타진하고 있는 연구는 없다. 사서직의 지식의 습득은 대학과정에서의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계속교육과 개별 도서관에서의 자결개발 프로그램을

60) 문헌정보학 VS 정보학, 도메리 글 번호 7153.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교육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개별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없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정신성과 기술성 속에서 혼련되어야 습득되는 것이다. 정신성은 문헌정보학 학문과 현장에 대한 사상, 철학 또는 직업윤리가 어우러지는 정신적인 문제이다. 이 주제는 지금 강단과 현장, 어디에서도 보기가 어렵다. 기술성이 온통 정신을 빼앗아 가버린 형국이다. 도서관을 토대로 하는 전문직 단체는 몇 개가 있으나 그것들이 모두 사서직의 자율적 통제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모여서 현안을 토의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현단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문제의 진단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진단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제시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현장 사서들이 스스로 느끼고, 고민하고, 토로한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 알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아주 제한된 몇 가지 사례만으로 만족 할 수 밖에 없다.

현장 사서들은 우리 학문이나 현장에서 철학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할영역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어떠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⁶¹⁾ 계속교육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사서직에 교육 기회가 돌아가게 교육기간을 늘이고,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주제별, 관종별, 직급별 등의 세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서자격제도는 도메리에 올려진 모든 메시지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학부제 실시로 학점의 하향조정, 사서교육원을 통한 자격부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자격시험을 주장한다. 의사, 변호사는 물론 간호사까지도 국가시험을 거침으로서 전문직으로의 신뢰성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서자격증 문제는 한 때 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한 바가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어떤 상설 위원회의 활동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관리조직 구조와 직업윤리성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도메리의 메시지에서조차 조직의 경직성, 관료성을 나무라고 직업윤리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정신과 기술의 결합 속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테크놀러지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그것을 사용할 사람에 대한 소양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도서관 조직의 관료화, 사회적 의제개발의 부족, 도서관 문제에 대한 주체적 참여 부족 등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의 설치와 '개인 사서의 정신'이 함께 작용할 수 있을 때 그 성과가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소개하는 수많은 세미나도 필요하지만 도서관협회의 '도서관문화강좌'⁶²⁾와 같은 우리에게 부족한 '도서관정신'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61) 이소연, 도서관 경영과 조직정체성, 《국회도서관보》 38(5) (2001.9), pp.3-28.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지난 11월 19일 한국독일사학회는 '독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의 독일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독어독문학의 '한국 사회와 연관성', '한국학문에 기여방법', '한국적인 독어독문학의 위상과 역할' 등이다. 문헌정보학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이다.⁶³⁾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2) 김정근, 량가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알고 넘어갈 것인가, 건너 뛴 것인가”

이용남, 임대섭과 도서관운동”

오동근,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남태우,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지적 기원”

위의 내용들은 《도서관문화》 42(3) (2001. 5. 6), pp.36-40.에 요약되어 있다.

63) “독일학 지금까지 현실 안주했다. 인접 학문과 소통 시도, 《교수신문》 247호(2002.10.28) p.7.